

## 세계 바이오기술 포럼 6월23일 개최

국내 바이오제약 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유치하기 위한 포럼이 개최된다.

KOTRA는 6월23-24일 양일간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<글로벌 바이오텍포럼 2009>를 개최한다.

23일에는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Novatis를 비롯한 글로벌 바이오·제약기업 12사가 한국기업의 협력 수요를, 한미약품과 LG생명과학 등 14개 국내기업들은 유망기술을 각각 발표한다.

24일에는 기업 파트너링 상담회에 해외기업 70사와 국내기업 80사가 참가해 상호 기술이전과 공동연구, 투자유치, 의약품 수출 등 다양한 협력가능 분야에서 총 400건의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.

상담행사에는 글로벌 50위권 내 제약기업 가운데 13사와 세계 최대 주사용제 생산업체 호스피라, 인디아 최대 제약기업 란박시 등 각국의 대표 제약기업들도 참가한다.

이밖에 글로벌 단백질 의약품 메이저인 CSL은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도입을 시도하고, 연 매출 12억 달러 규모인 임상시험 수탁기관 캐나다 MDS도 국내 대형병원 및 임상시험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및 협력 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.

이한철 KOTRA 본부장은 “글로벌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에 매우 적극적이며 국내기업들도 국제화 의지가 매우 높다”며 “앞으로도 바이오분야 기술협력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09/06/22>